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11월 생산은 전월대비 3.2% 증가(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3.2%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5.3%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의복 및 모피, 화학제품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6.2%).
-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인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0%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3%).

◆ 2021년 11월 소비는 전월대비 1.9%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0.9%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5.7%), 가전제품 등 내구재(-3.2%)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9%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6%).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0.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3.6%)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0.9% 증가함(전년동월대비 +9.2%).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2.4%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8%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1월	10월p	11월p
생산	전 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0.9	-1.9(4.8)	3.2(5.3)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0.5	-2.9(4.5)	5.1(5.9)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0.5	-2.9(4.6)	5.3(6.2)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4.1	-1.2(-0.1)	2.4(-5.6)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0.8	-0.4(5.1)	2.0(5.3)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0.3	0.1(7.4)	-1.9(4.6)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2.7	-5.0(3.0)	10.9(9.2)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2	0.5(3.8)	0.2(3.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12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지수』, 각 호.

◆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2%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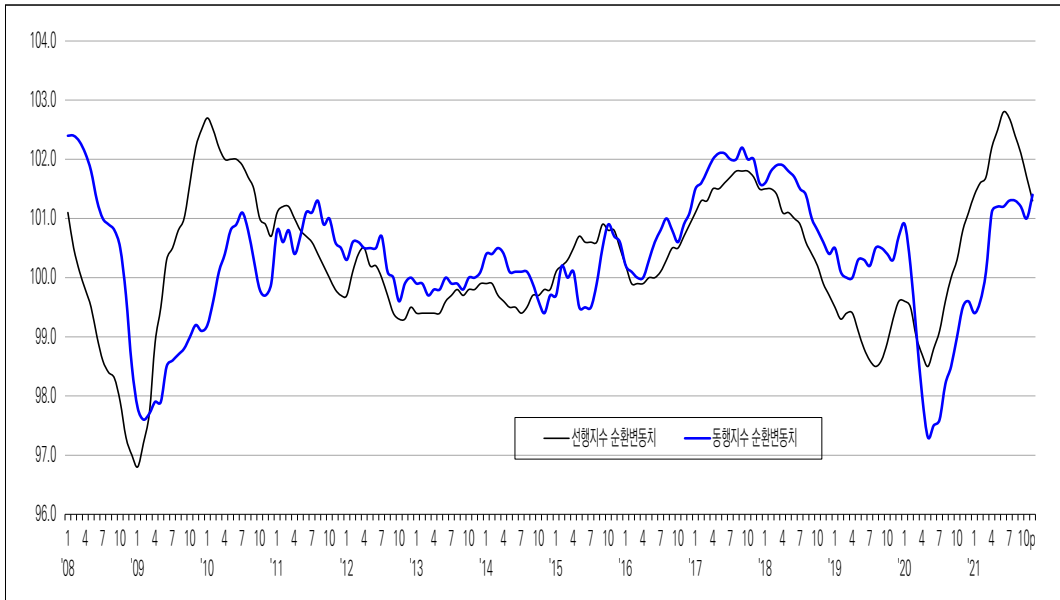
○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04(2020=100)로 전월대비 0.2%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음식·숙박(0.9%), 식료품·비주류 음료(0.6%), 기타 상품·서비스(1.0%), 주택·수도·전기·연료(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9%), 오락·문화(0.4%), 교육(0.1%)은 상승, 통신, 의류·신발, 보건의는 변동 없으며, 주류·담배(-0.2%), 교통(-1.9%)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월대비 0.2%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8% 하락하여 전월대비 0.4% 하락함.

◆ 2021년 1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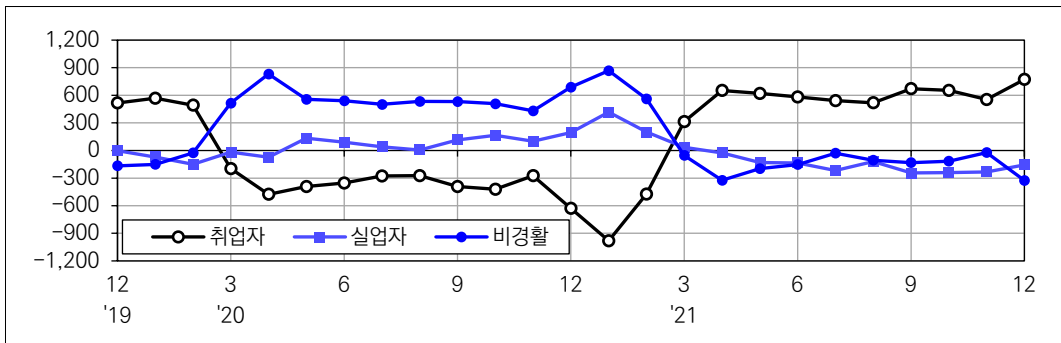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전월대비 취업자 수도 증가

○ 2021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7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전월대비) 1) 6만 3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12월 제조업 취업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 및 예술스포츠는 증가로 전환함. 도소매는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보건복지는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12월은 3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20대는 음식숙박에서 증가 전환됨. 30대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40대는 도소매에서, 50대는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12월은 전년동월대비 일용직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로 전환됨. 일용직은 건설업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로 전환함.
- (일시휴직자) 12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36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확대(11월 -12만 2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만 3천 명 감소함.
- (실업자) 12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5만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11월 -23만 3천 명)됨.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증가로 전환됨. 전월대비로는 18만 9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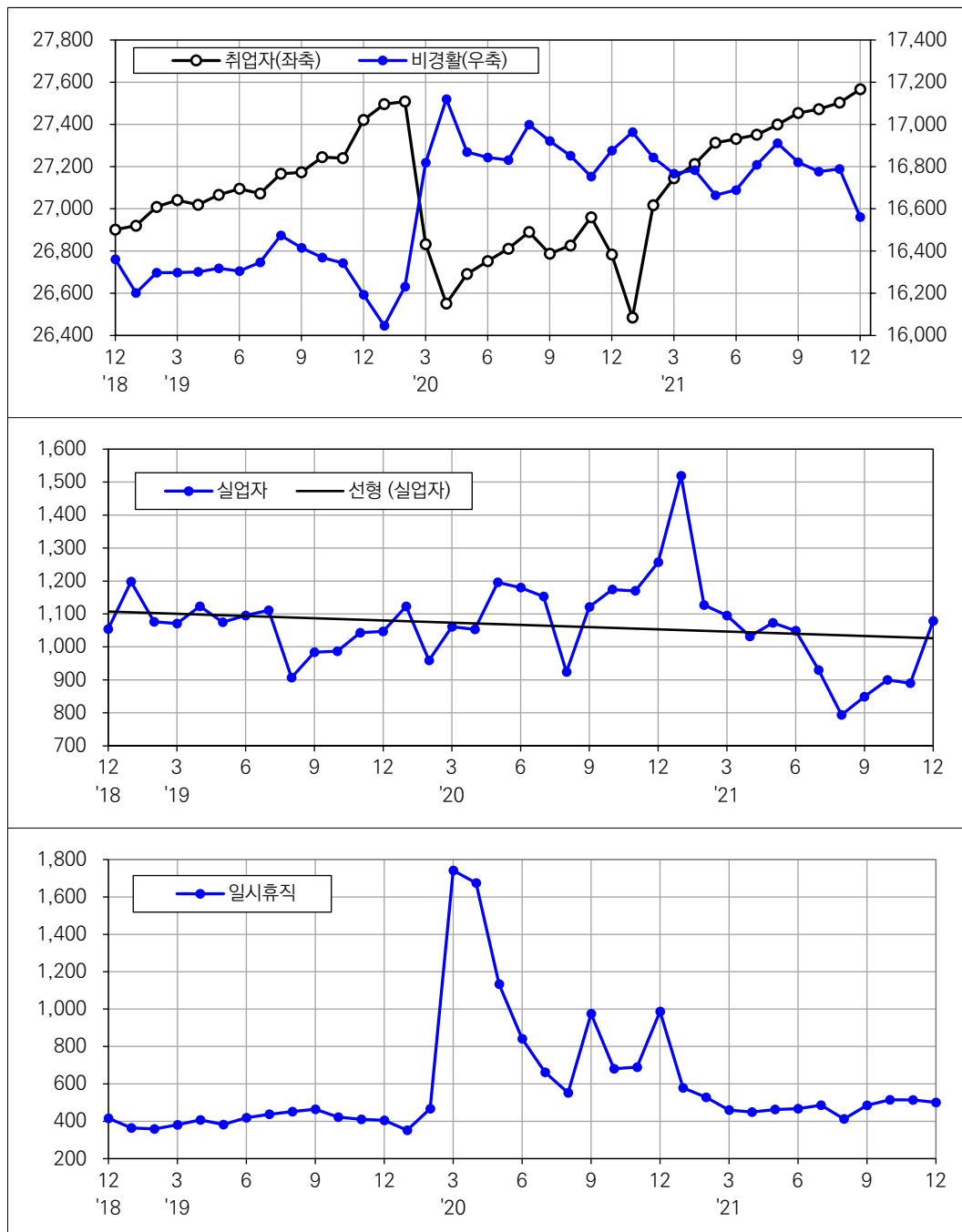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함.

- 20대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주로 음식숙박에서 증가로 전환된 영향임. 30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금융보험에서는 증가 전환되며 전체 감소폭이 축소됨.
- 40대는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예술스포츠가 증가 전환됨. 50대는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60세 이상은 보건복지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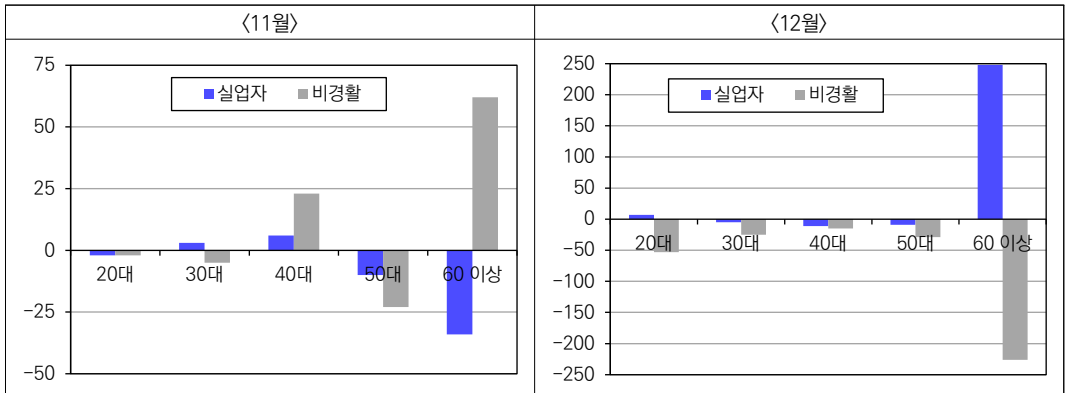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취업자	12	12	26	(8)	168	156	240	(36)	-24	-69	-11	(21)
실업자	-2	1	2	(-4)	-105	-104	-86	(7)	-59	-52	-65	(-5)
비경황	-130	-124	-133	(-9)	-90	-91	-210	(-53)	-52	-10	-52	(-25)
실업률	-1.8	0.1	0.1	(-2.2)	-2.7	-2.7	-2.5	(0.1)	-1.0	-0.9	-1.2	(-0.1)
고용률	0.8	0.8	1.5	(0.4)	2.8	2.8	4.2	(0.7)	1.1	0.4	1.3	(0.4)
	40대				50대				60세 이상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취업자	20	-27	13	(22)	124	149	214	(43)	352	331	290	(25)
실업자	-36	-18	-29	(-11)	-29	-35	-56	(-9)	-10	-24	77	(248)
비경황	-52	-20	-47	(-15)	-85	-97	-135	(-29)	293	319	250	(-226)
실업률	-0.5	-0.3	-0.5	(-0.2)	-0.5	-0.5	-0.9	(-0.1)	-0.4	-0.6	1.1	(4.0)
고용률	0.9	0.2	0.8	(0.3)	1.4	1.6	2.3	(0.5)	0.6	0.4	0.3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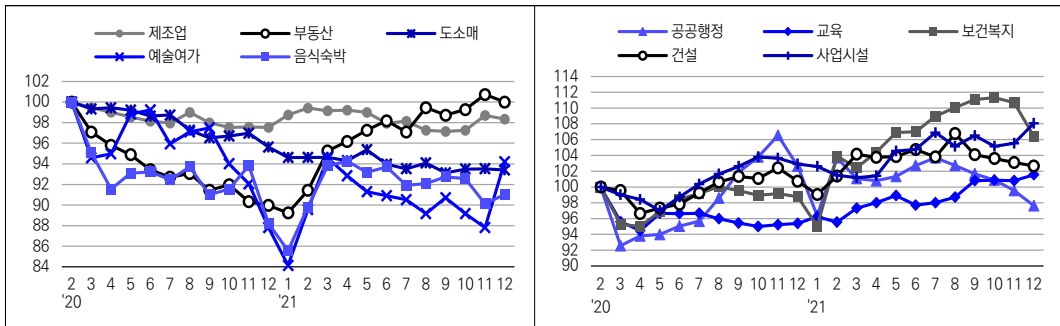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동산,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이 감소함. 도소매는 정체된 반면 예술여가, 음식숙박, 교육, 사업시설은 개선됨.
- 부동산,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 교육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20	31	35	18	19	102	139	9.7
광업	0	-2	-2	0	0	0	0	0.0
제조업	-13	51	37	5	64	-16	53	1.2
전기·가스·증기	2	0	3	2	0	-1	1	1.3
수도·원료재생	13	7	11	-5	1	4	0	0.0
건설업	52	16	40	-10	-10	-9	-29	-1.4
도매 및 소매업	-113	-123	-80	13	1	-4	10	0.3
운수 및 창고업	163	148	127	13	-3	-8	2	0.1
숙박 및 음식점업	22	-86	66	-4	-56	21	-39	-1.8
정보통신업	103	106	82	-1	14	-10	3	0.3
금융 및 보험업	15	20	25	4	0	11	15	1.9
부동산업	39	56	54	3	8	-4	7	1.3
전문·과학·기술	64	87	92	9	26	16	51	4.2
사업시설관리지원	19	25	69	-18	5	34	21	1.5
공공행정·사회보장	-33	-81	-56	-9	-15	-22	-46	-4.0
교육서비스업	108	105	115	1	-1	14	14	0.7
보건 및 사회복지	300	279	174	6	-15	-102	-111	-4.2
예술·스포츠·여가	-26	-22	32	-8	-7	33	18	3.8
협회·단체·수리·기타	-57	-49	-29	-16	8	-23	-31	-2.7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2	-12	-18	-3	3	-2	-2	-2.3
국제 및 외국기관	-3	-2	-4	-2	2	-1	-1	-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12월은 전년동월대비 일용직의 감소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도소매에서 증가 전환되고 음식숙박의 감소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음식숙박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보건복지는 증가폭이 축소됨. 일용직은 건설업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제조업은 증가로 전환, 사업관리지원은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교육 및 예술스포츠에서 증가로 전환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615	611	652	91	63	79	233	1.6
임시직	219	106	119	-88	-11	-171	-271	-5.6
일용직	-162	-175	-74	-40	-4	-42	-85	-7.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6	-4	53	24	33	29	86	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5	42	36	25	5	42	72	1.7
무급가족종사자	-37	-27	-13	10	-4	19	25	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농림어업	-10	-11	-11	-5	0	5	5	6	7	-5	-3	5	46	43	41
제조업	18	62	40	-14	-14	-10	-16	-13	3	-9	-5	5	1	6	-12
건설업	88	74	72	-8	-13	-10	-46	-63	-39	0	5	7	15	7	4
도소매	-5	-28	16	-14	-7	-20	-33	-25	-31	-21	-9	3	-15	-26	-23
운수창고	74	75	61	23	11	6	11	1	-4	-2	1	2	54	58	59
음식숙박	-32	-49	-19	50	22	74	-44	-60	-15	7	-7	16	37	8	-2
정보통신	94	97	81	26	13	12	1	6	3	1	3	5	-18	-13	-19
금융보험	-1	-8	-1	23	35	34	-3	-2	-4	-2	-2	-2	-2	-3	-1
부동산	25	45	51	15	10	11	3	1	2	-5	-4	-2	1	2	-10
전문과학기술	98	110	115	-17	-11	-12	-4	-5	-4	0	0	-3	-9	-3	-1
사업관리지원	-13	-2	27	25	17	14	3	2	17	4	1	0	-3	3	7
공공행정	68	41	35	-96	-114	-83	-6	-7	-8	-	-	-	-	-	-
교육서비스	36	43	47	67	48	51	2	3	-1	0	8	1	-2	0	9
보건복지	151	147	117	148	126	44	-4	-4	-1	10	14	18	-2	-3	-4
예술스포츠	10	10	2	-5	-19	9	-8	-3	0	-3	-6	-5	-13	0	28
협회단체	5	5	16	18	14	13	-26	-13	-2	-1	-1	0	-47	-36	-41
가구 내 고용	2	3	3	-21	-14	-22	-1	2	2	-1	-1	0	-2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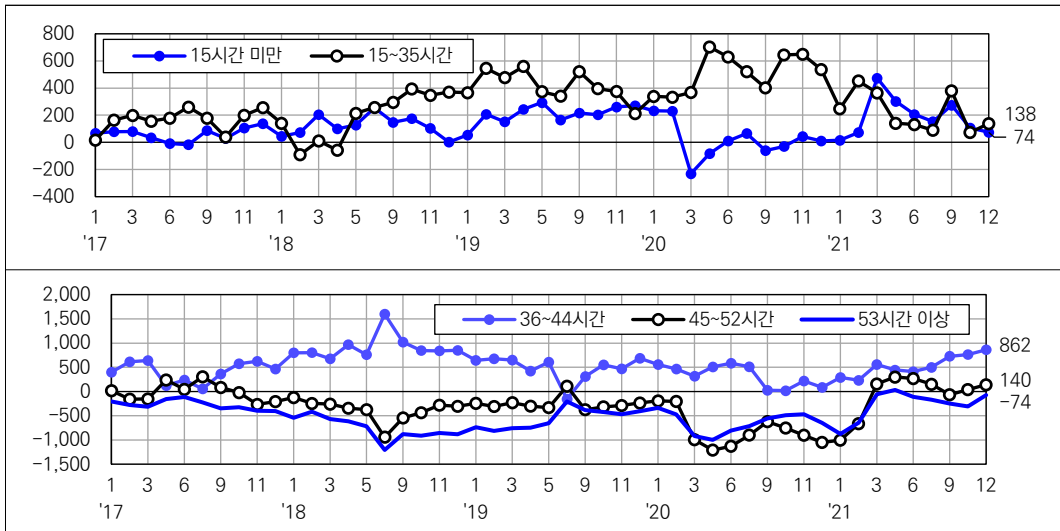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2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시간 증가함.

－ 12월 근로시간 증가 영향은 일시휴직자 감소와 36~44시간 근로자 비중 증가의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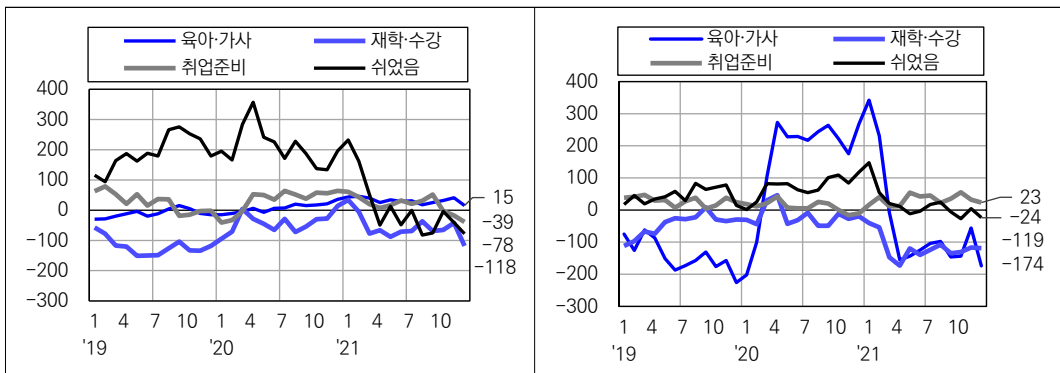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2만 7천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11월 -2.3만 명)됨.

－ 남성은 모든 사유에서 감소폭이 확대 혹은 증가폭이 축소되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로 전환됨. 여성은 주로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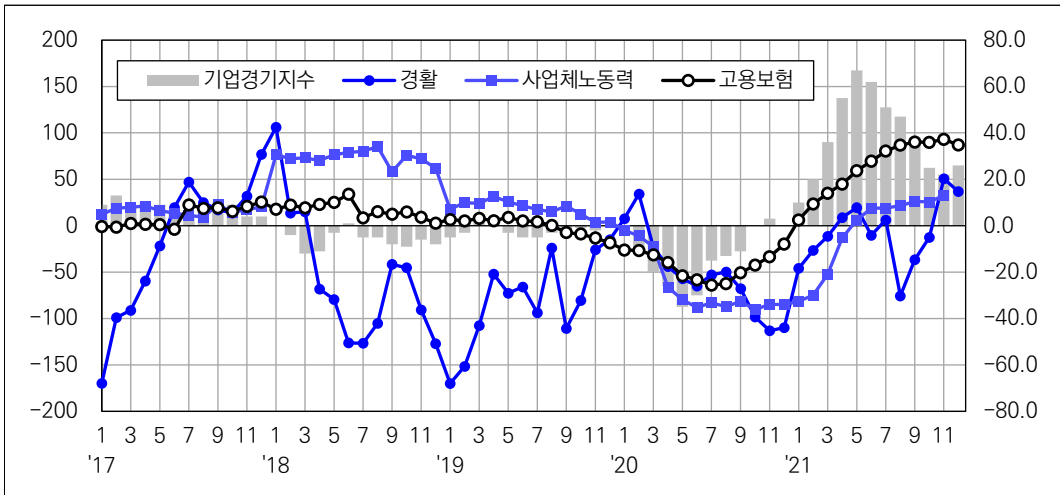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2021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3만 7천 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폭이 축소됨. 피보험자는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6천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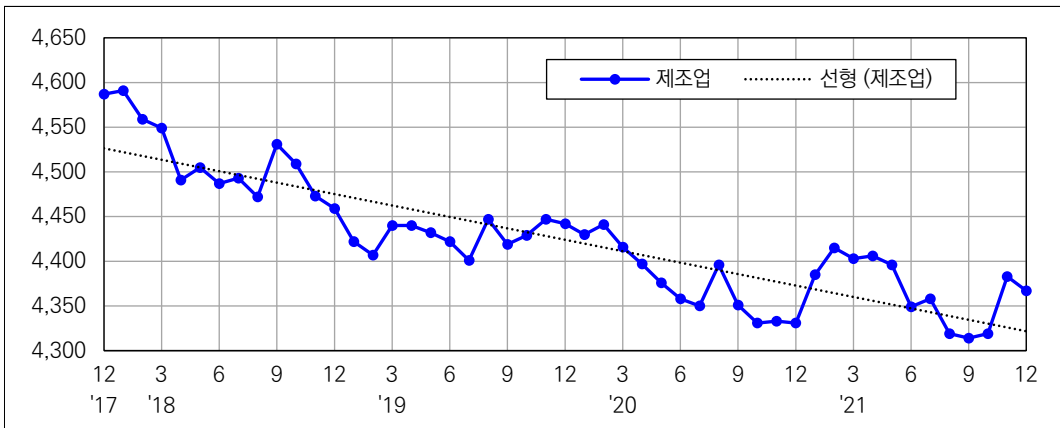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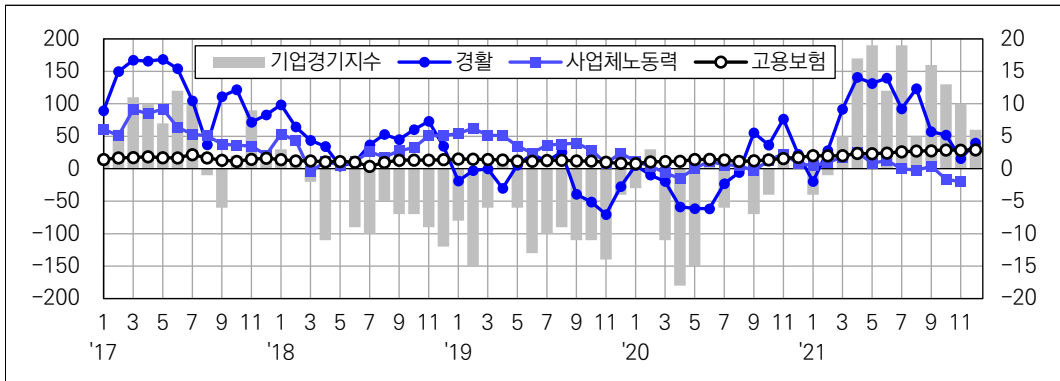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2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4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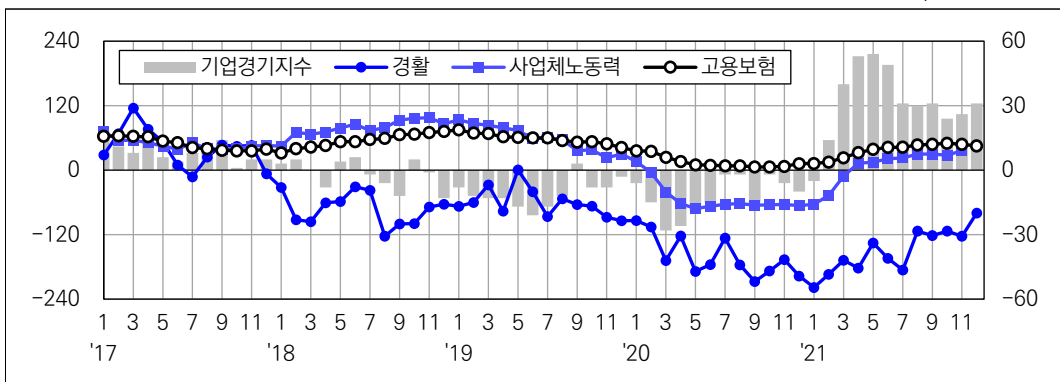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12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66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도소매) 경찰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고 업황 개선도 이어짐.
 - (숙박음식) 작년 감소 기저의 효과로 경찰 취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로 전환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일자리 사업 종료로 증가폭이 축소됨.
 - (예술스포츠) 2021년 내 업황이 개선되었음에도 4월부터 감소가 이어지던 경찰 취업자는 12월 증가로 전환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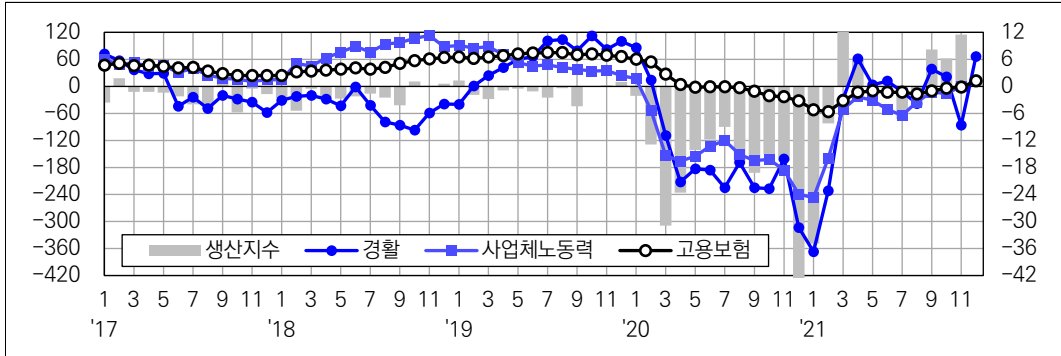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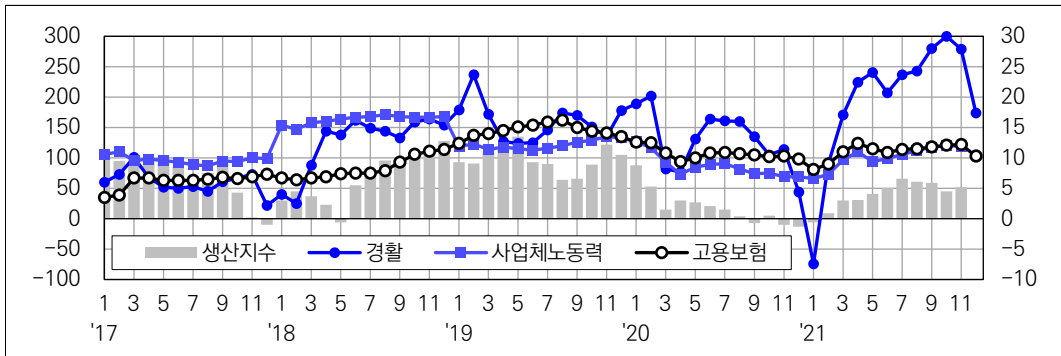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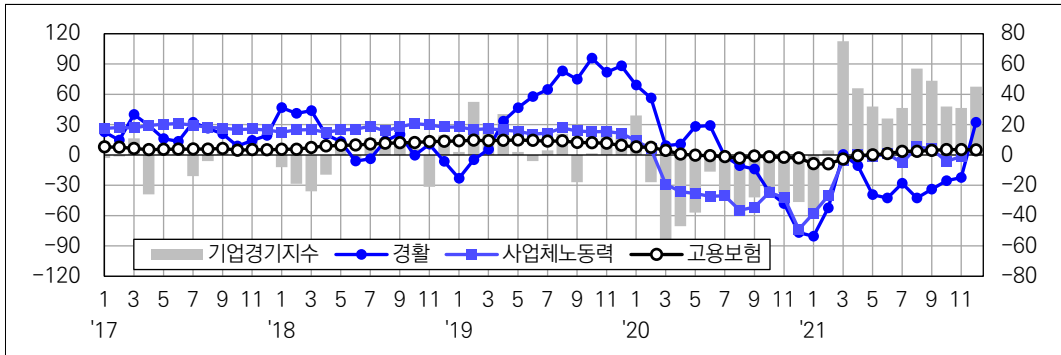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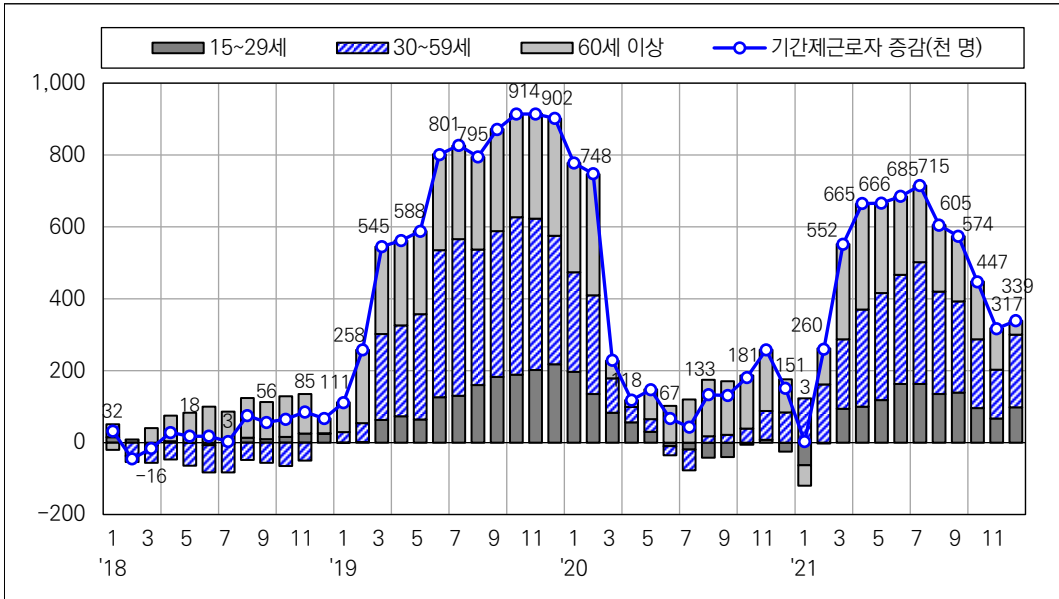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12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3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60세 미만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증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10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2021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5만 5천 원(3.6%)임.
 - － 2021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64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0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함.
 - － 2020년 10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 상승률이 둔화되고, 자동차·조선업 관련 산업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하면서 2019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2021년 10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 부진한 임금상승폭에 따른 기저 등의 영향으로 3.5% 상승함.
 -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축소는 전년동월에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기저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근로자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503 (0.7)	3,334 (0.3)	3,653 (4.3)	3,455 (3.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690 (0.0)	3,853 (4.4)	3,640 (3.5)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062 (2.2)	3,063 (2.6)	3,163 (3.3)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198 (-1.7)	217 (2.1)	207 (4.4)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429 (-12.3)	236 (-25.2)	483 (12.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626 (7.8)	1,642 (7.1)	1,692 (4.1)	1,703 (3.7)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0.2 (0.5)	100.2 (0.1)	103.4 (2.2)	103.4 (3.2)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0.2	0.2	2.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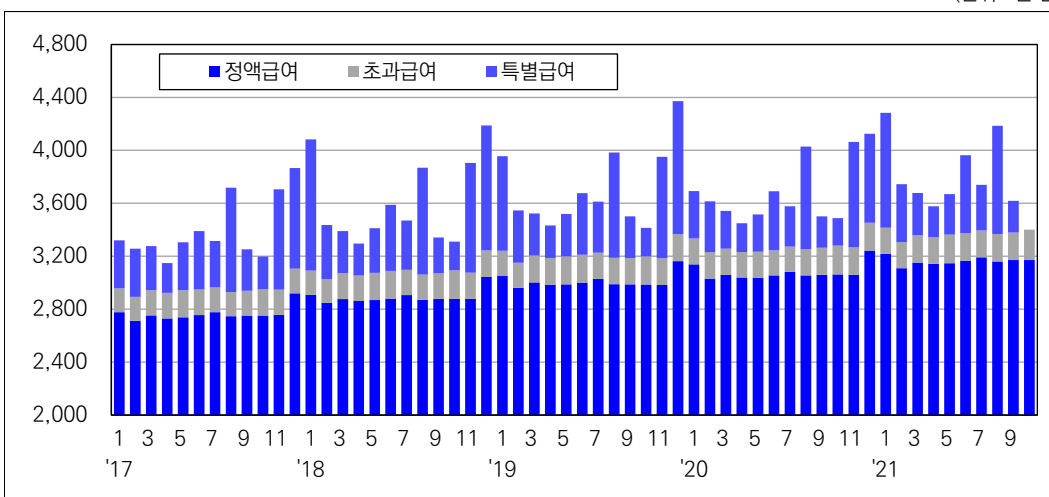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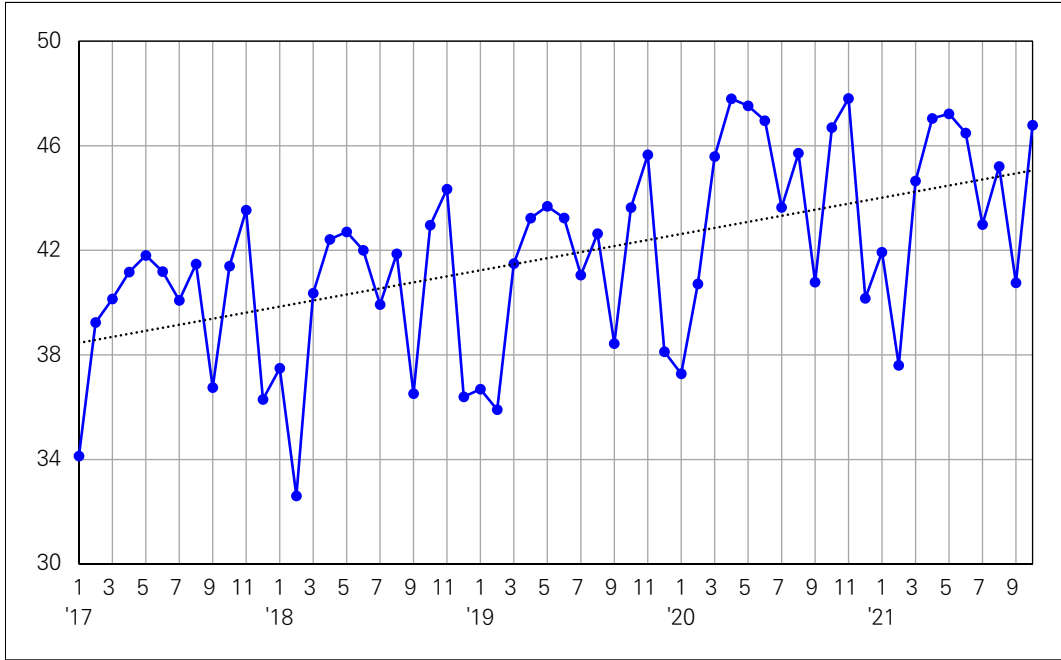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0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10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4%, 4.4% 증가함.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4.4% 증가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1%, 10.6% 증가함.

－ 1~10월 평균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7%, 5.7% 증가함.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 증가는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이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증가는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되었던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확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10월	10월	1~10월	10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4.6)	3,139(4.0)	3,193(1.7)	3,172(1.6)	3,068(2.1)	3,289(3.7)	3,171(3.4)
	상용임금총액	3,217(11.5)	3,338(3.7)	3,377(1.2)	3,352(1.0)	3,247(1.8)	3,479(3.8)	3,352(3.2)
	정액급여	2,723(4.7)	2,841(4.3)	2,915(2.6)	2,903(2.6)	2,909(3.0)	2,998(3.3)	3,010(3.5)
	초과급여	172(4.8)	175(2.0)	171(-2.4)	169(-3.3)	184(0.2)	175(3.6)	192(3.9)
	특별급여	322(1.9)	322(-0.2)	292(-9.4)	280(-11.2)	154(-14.2)	306(9.5)	151(-2.0)
	비상용임금총액	1,422(5.3)	1,505(5.8)	1,615(7.3)	1,605(7.3)	1,623(7.0)	1,663(3.6)	1,674(3.1)
대규모	소 계	5,305(6.5)	5,356(1.0)	5,242(-2.1)	5,203(-3.0)	4,691(-6.0)	5,501(5.7)	4,896(4.4)
	상용임금총액	5,474(6.4)	5,492(0.3)	5,335(-2.8)	5,294(-3.8)	4,777(-6.2)	5,602(5.8)	4,986(4.4)
	정액급여	3,735(3.8)	3,843(2.9)	3,847(0.1)	3,818(-0.1)	3,784(0.5)	3,937(3.1)	3,924(3.7)
	초과급여	324(0.0)	335(3.5)	340(1.4)	339(0.8)	370(5.5)	358(5.6)	403(8.8)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149(-12.5)	1,137(-15.6)	622(-36.3)	1,307(14.9)	659(5.9)
	비상용임금총액	1,509(7.8)	1,712(13.4)	2,029(18.5)	2,024(19.2)	1,981(8.1)	2,216(9.4)	2,19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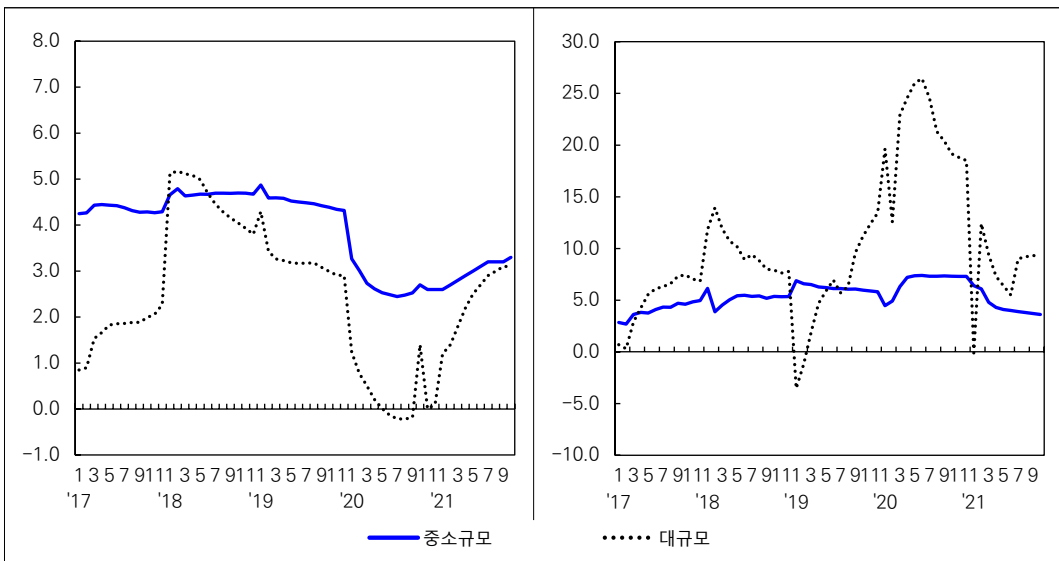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교육서비스업(-0.3%)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10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85만 5천 원)이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1만 6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60만 1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6.1%)이며,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은 4.7%로 평균임금상승률(3.6%)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10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0만 7천 원)이며,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4만 4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59만 5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345만 5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503	3,334	3,653 (4.3)	3,455 (3.6)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306	3,972	4,408 (2.4)	4,091 (3.0)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3,949	3,740	4,177 (5.8)	3,916 (4.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633	5,140	6,682 (0.7)	5,316 (3.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3,805	3,657	3,991 (4.9)	3,849 (5.3)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030	2,915	3,087 (1.9)	3,037 (4.2)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393	3,277	3,517 (3.7)	3,397 (3.7)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500	3,366	3,718 (6.2)	3,570 (6.1)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882	1,884	1,893 (0.6)	1,907 (1.2)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607	4,347	4,776 (3.7)	4,444 (2.2)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6,451	5,661	6,909 (7.1)	5,855 (3.4)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838	2,727	2,931 (3.3)	2,845 (4.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4,804	4,488	5,010 (4.3)	4,601 (2.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396	2,395	2,478 (3.4)	2,444 (2.1)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400	3,110	3,386(-0.4)	3,100(-0.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2,936	2,896	3,007 (2.4)	2,963 (2.3)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849	2,613	2,973 (4.3)	2,854 (9.2)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553	2,486	2,692 (5.4)	2,595 (4.4)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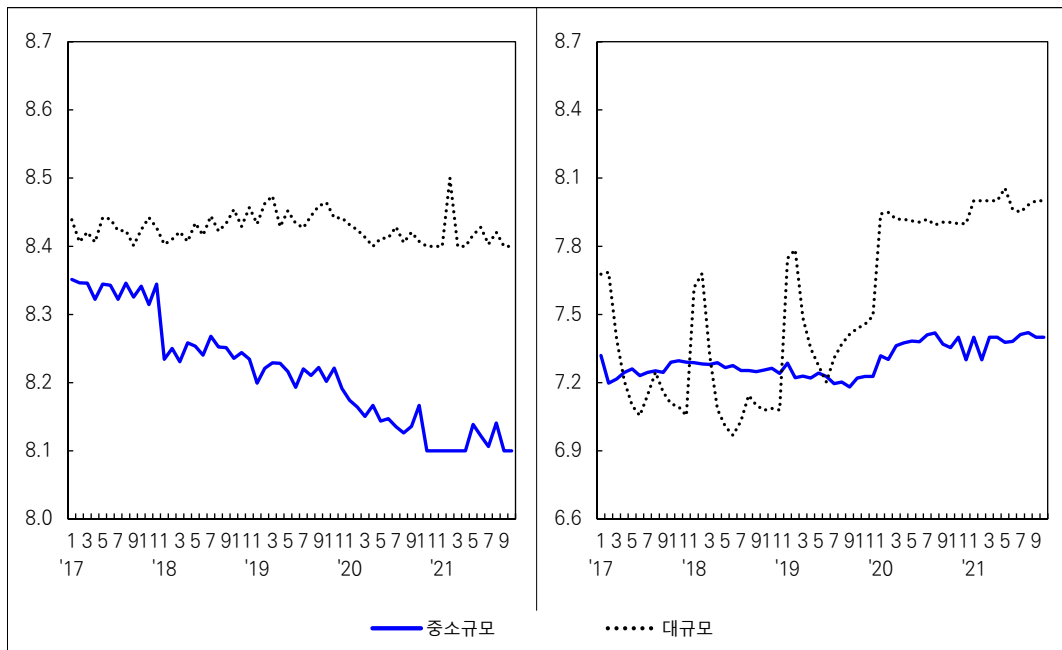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1.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19일))

- 2021년 10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시간 증가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크게 영향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전년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10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
-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증가, 대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0.3시간으로 2.0시간 감소함.
 - 대기업의 근로시간 감소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10월	10월	1~10월	10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59.3(-1.9)	150.1(-9.3)	158.3(-0.6)	151.6(-1.0)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6.6(-2.3)	157.0(-9.8)	165.5(-0.7)	158.4(-0.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58.9(-1.9)	148.6(-10.0)	157.8(-0.7)	150.1(-1.0)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7(-10.5)	8.4(-6.7)	7.7(0.0)	8.3(-1.2)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5.6(0.3)	94.5(0.6)	96.8(1.3)	95.3(0.8)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2.0(-1.0)	152.3(-8.1)	160.5(-0.9)	150.3(-1.3)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3.1(-1.7)	153.4(-8.3)	161.5(-1.0)	151.3(-1.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2.1(-1.6)	141.2(-9.1)	150.4(-1.1)	138.8(-1.7)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0.9(-4.4)	12.1(1.7)	11.1(1.8)	12.6(4.1)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4.9(20.8)	118.6(2.7)	127.3(1.9)	120.2(1.3)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0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7%)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5.7%), 금융 및 보험업(-0.9%), 부동산업(-0.8%), 교육서비스업(-0.4%)임.
- 2021년 10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73.7시간)이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7.3시간), 제조업(164.0시간), 부동산업(163.6시간)임.
-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27.8시간), 건설업(128.8시간)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59.7	150.5	158.7(-0.6)	151.4(0.6)
광업	176.6(0.5)	175.7(-0.5)	181.2	179.4	172.6	178.1(-0.7)	173.7(0.6)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1.3	163.4	171.3(0.0)	164.0(0.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2.7	150.1	160.4(-1.4)	141.6(-5.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5.6	165.9	174.5(-0.6)	167.3(0.8)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6.6	127.8	134.4(-1.6)	128.8(0.8)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3.0	152.7	161.8(-0.7)	154.4(1.1)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8.4	150.4	158.5(0.1)	152.7(1.5)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49.8	145.6	146.9(-1.9)	146.7(0.8)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62.9	150.1	161.8(-0.7)	150.8(0.5)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61.4	148.6	159.6(-1.1)	147.2(-0.9)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2.5	164.9	170.1(-1.4)	163.6(-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61.1	147.2	159.3(-1.1)	147.7(0.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60.9	152.0	160.3(-0.4)	152.6(0.4)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5.8	128.3	135.3(-0.4)	127.8(-0.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7.6	148.0	156.2(-0.9)	149.4(0.9)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49.7	140.0	151.2(1.0)	146.1(4.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59.4	150.0	160.4(0.6)	154.6(3.1)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5건
 - 1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3건)보다 2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12월 조정성립률 57.1%
 - 1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63.6%에 비해 6.5%p 낮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1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 건, %)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12.	15	19	8	6	2	6	0	6	0	5	7	57.1%
2020. 12.	13	13	7	4	3	4	0	4	0	2	6	63.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표 2〉 2012~21년 12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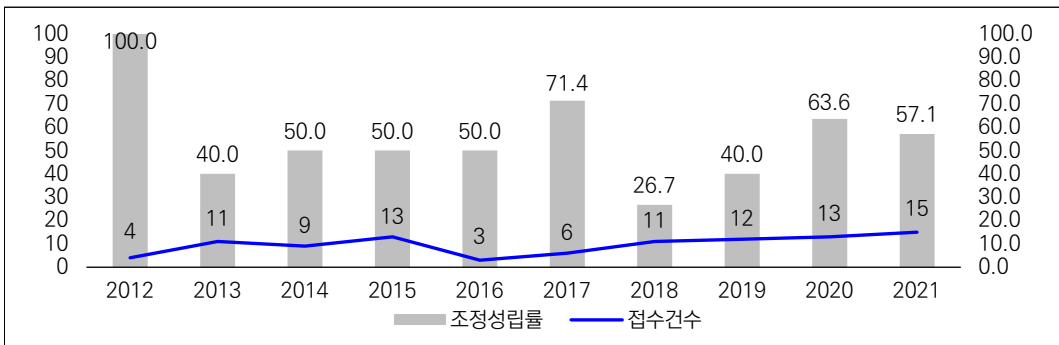
(단위 : 건, %)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2018. 12.	2019. 12.	2020. 12.	2021. 12.
접수건수	4	11	9	13	3	6	11	12	13	15
조정성립률	100.0	40.0	50.0	50.0	50.0	71.4	26.7	40.0	63.6	57.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12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58건
 - 12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216건)보다 58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8%(5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2%(139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1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2.	158	190	43	8	102	5	22	10	399
2020. 12.	216	243	57	15	103	19	27	22	56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9건
 - 12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11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5.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0%(3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2.	9	4	1	0	3	0	0	0	13
2020. 12.	11	5	3	0	2	0	0	0	14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한국타이어 파업 26일 만에 노사 협상 타결

- 2021년 12월 17일 한국타이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를 통해 임금 6% 인상, 성과급 500만 원, 협상 타결금 20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노사는 임금 협상과 함께 만 58세를 기준으로 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2년에 1회 전 사원 배우자에게 종합검진 제공 등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도 맺었음.
- 협상이 타결되면서 2021년 11월 24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국타이어 대 전공장과 금산공장이 이날부터 정상 가동된다고 하였음.
- 협상 당시 노조 측은 당초 임금 10.6%를 인상하고 글로벌 영업이익의 10%를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
- 반면 사측은 5% 인상과 성과급 500만 원을 제시했음.

◆ 배민·라이더 노조 배달료 협상 합의

- 2021년 12월 24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와 배달료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합의안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각 라이더의 안전 운행을 위해 연간 보험료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음. 1년 이상 배송 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의 배송실적이 있는 라이더에게는 2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임.
- 배달료 산정 기준은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바꾸기로 하였음. 노사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이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어서임.
- 기본배달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음.

◆ 기숙사 휴게실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 2021년 12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관악지사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에게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승인됐다고 통지했음.
- A씨는 지난 6월 27일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음. A씨는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했음.
-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직접 들어 건물 밖으로 옮겼음.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 22일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그의 청소 노동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임을 인정했음.

- 질판위는 판정서에서 “업무시간은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 그러면서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을 고려할 때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노후건물의 샤워실 곰팡이를 씻어야 하는 점 등에서 커다란 육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봤음.

◆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직업성 암 첫 산재 인정

- 2022년 1월 5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22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약 10년간 청소노동자로 일한 A씨의 암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음.
-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에 소속돼 청소업무를 했음.
- 입사 후 8개월 동안 클린룸(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공정 청정실)에서 주간근무를 했고, 이후 9년 4개월 동안은 스모크룸(smock room,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작업자들이 방진복으로 갈아 입는 공간)에서 3교대로 일했음.
- A씨는 스모크룸에서 바닥청소를 비롯해 방진복·방진화를 정리하고 세탁물과 폐기물을 수거·반출하는 업무를 주로 했음. 이 과정에서 작업복이나 장갑에 묻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음.
- A씨는 아산공장에서 일하기 전에도 20년 넘게 불규칙적으로 야간·철야작업을 했음.
- 18년 9개월간 미싱공으로 주 6일제로 근무하며 주 1~2회 이상 야간·철야작업을 했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택시기사로 1년 5개월간, 3교대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로 1년 5개월간 일했음.
-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미싱사를 포함해 야간근무 이력이 20년 이상인 점,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청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음.

◆ 산재사망 80%, 중대재해법 유예·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 2022년 1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줄어들었음.

- 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등임.
- 소속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 이었음.
-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51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으며, 끼임 95건(11.5%), 부딪힘 72건(8.7%) 순으로 나타났음.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건수도 각각 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음.

◆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사전 실사' 받아야

- 2021년 12월 23일 교육부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노무사와 안전전문 집단이 참여하는 사전 현장실사를 받아야 함.
- 지금까지는 선도기업만 노무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실사를 받았음.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현장실사에 동행함.
- 다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 문제 사업장에 대해선 학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함.
-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학생들을 '실습생'보다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교육 당국이 현장실습 비용도 추가로 부담키로 했음.
- 현장실습 비용은 지금까지 기업이 70%, 국가가 30% 분담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로 기업 부담 비중을 낮추기로 하였음.

◆ 부모 다 육아휴직 땀 첫 석 달 통상임금 100% 지급

- 202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기간에 현재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음.
- 이에 따르면 아파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 300만 원을 받게 됨.
- 지금까지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음.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됨.
 - 부모 모두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도 나머지 부모 한 사람이 20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 **신규화학물질 122종 공표... 44종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 2021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10월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 장애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음.
-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122종으로 이중 ‘DL-10-캄포술포산’, ‘4-메르캅토펜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음.
- 고용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음.
-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정보 등을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하도록 했음.
- 이번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함.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